

쇼핑만 했을 뿐인데,
기부가 되네요!

한국여성재단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Gmarket과 함께 즐거운 나눔을 만들어 갑니다.
잠깐! 그 동안 검색사이트로 G마켓을 찾으셨나요?
이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G마켓으로 가세요.
한국여성재단에서 G마켓 배너를 클릭하고 쇼핑하는 것만으로도
구매액의 **1%**가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기금 전액으로 성차별해소와 여성폭력예방,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쇼핑과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3단계 방법

- 1단계.**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http://www.womenfund.or.kr>) 방문
- 2단계.** 홈페이지 상단 배너 「G마켓 후원쇼핑」 클릭! (자동으로 플러스 접속)
- 3단계.** G마켓 로그인 후, 즐겁게 쇼핑! 자동으로 1% 기부~

※ 꼭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G마켓으로 이동해야 후원이 됩니다.
※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010 봄호 Vol.009 다들들에게 희망을



특집 나누는 아이들, 나눔을 가르치는 어른들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 2010년 지방선거를 가다

글로벌리포트 여성재단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꾸며

오한숙희가 만난 사람 수다톡 TALK

새처럼 자유롭게, 낯선 곳을 향해 하이킥! 지영선과 함께 꿈꾸기 실습

여성과 팔짱끼다 건설회사가 책을 읽고 나눈다고? 우림건설 사회공헌활동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5월 여성희망 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의
새 역사를 만들어주세요!



한국여성재단의 100인 기부릴레이는 해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24,200,000
2009년 한 아픔이당
최고 모금액

81
2009년 100인
기부릴레이 완주한
아픔이 수

294
2009년 아픔이
최다 주자 수



4,158
2009년 100인
기부릴레이 참가자 수

14
2009년 최연소
아픔이 나이

156,201,570
2009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액



해마다 역대 최고와 최대를 만들어내는 5월 100인 기부릴레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년 올해의 '특별한 수'를 만들 나눔의 주인공이 되세요.

• 아픔이 참여안내 : 02-336-6463, 6453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 여성희망캠페인 특별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4월중 오픈

Contents



봄호(9호)의 주인공 오민영, 안영란, 최덕호
나눔을 통해 세상을 만난 청소년들입니다.

04 **여는 글** | '100인 기부릴레이'의 세계화를 예감하며 |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6 **특집** | 나누는 아이들, 나눔을 가르치는 어른들

1. 난생 처음 번 돈, 책 사고 기부도 하고 | 오민영 · 성신여대 1학년
2. 완주의 달콤한 유혹, 기부릴레이 | 최덕호 · 천호중 3학년
3. 비누사세요! 기부하시면 그냥 드려요 | 안영란 · 민족사관고 3학년
4. '나눠먹자'에서 출발했지요 | 전성실 · 동광초 교사

14 **기획** | 여성의 정치참여, 2010년 지방선거를 가다

1.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사회조성'의 밑거름 | 조현옥 · 이화여대 교수
2. 2010년 지방선거, 돈과 조직의 선거판을 바꾸자 | 한황주연 ·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3. 풀뿌리 여성정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꽃 피운다 | 김은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18 **글로벌리포트** | 여성재단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꾸며 | 김유은경 ·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22 **오한숙회가만남사람 수다톡TALK**

새처럼 자유롭게, 낯선 곳을 향해 하이킥! 지영선과 함께 꿈꾸기 실습

28 **만화가게2** | 여성과 마음 | 토마

30 **천만 개의 기부** | 화초를 나누면서, 성장을 나누면서 | 윤혜련 ·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32 **고양이손** | 년 바쁜데도 일하는 게 재밌어 보여 | 이보람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4학년

34 **기부 참 쉽지요**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부사용설명서 | 기획홍보팀

36 **여성과팔짱끼다** | 건설회사가 책을 읽고 나눈다고? 우리건설 사회공헌활동 | 기획홍보팀

40 **문화향기** | 우리는 길 위로 연결되어 있다 - 제주올레 여행과 나눔 | 정박미경 · 자유기고가

44 **여유와광감** | 인생은 아름다워? | 박혜란 · 여성학자, 작가

48 **재단통신** |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소개1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첫 삼을 뜨다!>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소개2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여성행동! We Start!"

통합적 돌봄시스템이 필요하다 <저소득층가구 보육서비스사업>

영남에 한국여성재단이 뜨다 <계명 · 유한킴벌리NPO여성리더심과정>

51 **고글리의 인세나눔** | <로드 스쿨러>

52 **<G마켓과 함께 하는 후원소핑>**

(재)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계간 딸들에게 희망을 봄호 발행일 2010년 3월 31일 통권9호 발행인 조형 편집인 강경희 편집위원 김혜련 로리주희 박미라 이유진 정박미경 표지촬영 한경은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 B/D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편집디자인 (주)인투그래픽 등록일 2006년 2월 6일 등록번호 서울바03609

‘100인 기부릴레이’의 세계화를 예감하며

글/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재단 가족 여러분, 2010년의 첫 계간지 ‘봄호’로 인사드립니다. 연초에 품으신 희망과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번 여는 글은 지난 2월 26일부터 1주일 동안 다녀온 뉴욕 출장에 대한 보고와 소감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뉴욕 방문의 주목적은 유엔 NGO글로벌여성포럼(NGO Global forum for Women)에 참석하여 글로벌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뉴욕의 여성재단들을 방문하여 모금동향과 우리 재단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여성리더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뉴욕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재단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재단 이름으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어서, 미국 여성재단의 동료들에게 ‘지금껏 어떻게 그리 고립될 수가 있었느냐?’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찾아간 ‘새로운 친구’에게 어떤 정보든 챙겨주려는 환대와 보살핌,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 모두가 어디선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듯 낯설지 않고 여성이슈들에 대해 금방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은 ‘여성들’이 가진 글로벌한 감성이고 특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여성대표가 참가한 이번 포럼은 같은 시기에 병행하여 개최되는 정부 대표들의 유엔여성위원회 연례회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정부회의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재단 외에도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연숙 여성재단 전 이사를 포함한 다섯 분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15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는 장이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면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세계 여성들과 나란히 패널에도 참여하고 주제별 특별 세션을 주관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3년 전부터 ‘글로벌여성리더십육성사업’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국제활동과 리더

십훈련을 지원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매년 열리는 유엔 NGO 글로벌여성포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맞아 모금환경이 악화되면서 미국 여성재단들의 고민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Ms Foundation for Women의 대표는 그들의 발명품인 미즈(Ms)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는 등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변했고, 미국 내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문제가 해소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슈화의 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재단마다 특성있는 위기 탈출의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여성 이슈를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 연계하여 제기하고,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성들이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거나, 무상 지원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모금영역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거액모금이 어려워지자 일반대중들의 기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재단의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방식을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여성재단의 트레이드마크인 ‘100인 기부릴레이’가 머지않아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 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써 브로드웨이 120가 대학건물 안의 게스트룸과 맨하탄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닌 지하철 노선들이 그리운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여유를 부릴 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재단은 이미 2010년도 지원사업과 5월 모금캠페인 준비로 마냥 분주하기만 합니다.

유난히도 번덕이 심한 봄날입니다. 재단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들로 보람찬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W

새 봄, 호모 앤젤리너스 4명을 만났습니다. 호모 앤젤리너스(Homo Angelinus)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을 지칭한다지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나눔에는 성적과 등수도 없습니다. 이번 봄에는 학교하면 생각나는 '성적' 과 '입시' 대신 '나눔' 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눔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과 만나는 다리를 놓아준 아주 따뜻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난생 처음 번돈, 책 사고 기부도 하고

글/오민영 성신여자대학교 1학년

지난 연말, 수능 끝나고 편의점에서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오니 <한겨레21> 정기구독 기간이 끝나가서 구독료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겨레21>은 고3 기간 동안 시사 공부를 위해 작년 1월부터 구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라 부모님께서 구독료를 내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돈을 버니까 제 돈으로 구독료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 구독자 이름을 변경하고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대하여도 문의했습니다. 1년 치 구독료를 한꺼번에 내면 구독료 중 일정금액을 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볼 거라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내기로 하고 여성을 위해 일하는 한국여성재단을 기부단체로 정했습니다. 내가 내는 기부금이 얼마 안 되지만 한국여성재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해서 번 돈으로 <한겨레21>을 구독했을 뿐인데 기부할 기회까지 얻어서 참 뿌듯합니다.

낯선 나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

1월 중순에 캄보디아에 가는 분이 계셔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어서 들뜬 마음으로 잠도 설치고 갔습니다. 막상 도착

해서 보니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드문드문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흙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들, 교통 신호등이 없고 역주행이 가능한 거리, 방목되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가축들, 정비되지 않은 상점 등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얘기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봐오던 한국의 옛 모습 같았습니다.

한국에만 있었던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교통 신호등이 없는 거리는 무질서함 그 자체이고,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고, 흙탕물을 마시는 것과 역주행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캄보디아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지내다보니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겐 그 생활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더라구요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물가가 비싸고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일하는 한국 분이 “민영아, 한국에 가면 주변에 안 쓰는 물건 좀 보내줘. 한국에서는 그냥 내버려지는 물건일지 몰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국에 오자마자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수건과 연필, 공책 등을 모아서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부탁하신 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특히 수건은 여러 용도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필과 공책 같은 학용품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용할거랍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현지의 한글학교 아이들이 제가 준 학용품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항상 기부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을 뿐 실천은 부족했고, 기껏해야 학교에서 사랑의 빵 저금통을 채워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기부를 해 보니 말로 표현 못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마냥 기뻐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기부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서 물건을 모아 캄보디아에 보냈지만,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친구들에게 같이 보내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에 보내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작은 나눔 계획입니다. W



완주의 달콤한 유혹, 100인 기부 릴레이

글/최덕호 천호중 3학년



고모할머니의 제안으로 제가 처음 여성재단에 기부한건 저금통이었습니
다. 처음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굴러다
니던 동전,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나 작은 돈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으
니까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제가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
시더군요. 그때부터 점차 기부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은 일이더라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제가 6학년이 되면
서 다시 고모할머니가 ‘기부릴레이’ 라는 걸 해보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며느리도 모를 완주의 기쁨

그래서 활동이라고 해야 하나? 어찌 되었던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
를 요청하는 기부릴레이를 하게 되었죠. 이걸 하면서는 힘든 점도 있었어
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돈을 기부해 달라고 하면 선뜻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어렸던 나이에는 더욱 힘들었죠. 막상 한다고는 했는데, 생각
할수록 막막했어요. 먼저, 나조차도 기부하려는 재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을 하려면 그 단체에 대해 알려줄 사
진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저런 생각이 들면서 고모할머니께 여성
재단 포스터나 문구 같은 것을 부탁드렸어요. 그걸 활용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 재단에서 ‘기부릴레이’ 라는 걸 시작했는데, 네가 도와주면 어떻
겠냐” 이런 말들로 애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봤죠. 물론 “싫다, 내가 불우이
웃이다” (웃음) 등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고난을 넘어 결국엔 저를 포함해
서 31명을 채웠습니다. 완주를 한 겁니다.

시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지만, 직접 하고 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
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기부릴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6학년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애들의 동심이라는 게 죽어서일까
요? 아니면 남자만 있는 반이어서일까요? 이런 저런 고난을 또 다시 넘어
서 겨우 릴레이를 완주했습니다.

정말이지, 그걸 다 채우고 잘 익은 내 포도를 볼 때는 정말 상쾌하더군
요.(31명이 기부를 하게 되면 포도가 익어 보랏빛이 된다) 아니 보람을 느
낀다는 게 맞을까요?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 기분은 같이 고
생하면서 릴레이를 하신 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오는 성취감을 위하여

그리고 중 1때, 이번엔 인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하
는 봉사라는 점과 인도라는 곳에 마음이 가서 통장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갔습니다.

그 때의 경험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마음에 남았습니다. 빈민가에서
쓰레기를 청소했던 기억, 시골(맞나?)에 가서 돌을 캐고 길을 부드럽게 했
던 기억 등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보람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외에
도 현지 주민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던 일, 축제에 참가했던 것 등 함
께 하며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어릴 적(?)의 추억이
죠.(웃음)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지만, 정말 보람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미숙한 제가 가르치는 것 같아 왠지 쑥스럽습니다만, 기부와
봉사 모두 해본 저의 소견으로 ‘기부’ 와 ‘봉사’ 는 할 때는 힘들지만 최
선을 다하고 나면 보람과 성취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
은 봉사는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일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아들 딸이 있으신 분,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기부
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든지 한번 쯤 기부릴레이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
니다. 31명을 다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셨다면 말이죠. 그리고 자녀분과 손자들에게 제가 느낀 그 기쁨을 느끼
게 해준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



비누사세요! 기부하시면 그냥 드려요.

취재/백진영 기획홍보팀

평소엔 잘 올라가지 않는 학교옥상에서 4명의 여학생들이 열심히 주걱을 저어댄다.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대로 쓰다 버린 기름을 모아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휘휘 젓는데 도통 비누 색깔이 안나온다.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비누 30여개를 만들어 거리에서 팔았다. 비누를 팔아 모은 돈은 어디에 쓸까? 장애인 재활병원건립모금에 학교이름으로 기금을 내겠다는 다부진 결심을 한 것이다.

민족사관학교 안영란 양은 친구 세 명(김보원, 송지은 최상현)과 2009년 1월에 이 일을 계획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일명 ‘G4모금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서울 명동, 이대, 고속버스터미널, 원주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비누를 팔았다.

첫 월급 탄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요?

“처음엔 비누를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구요. 기부하는 분에게 선물로 재활용비누를 나눠드리는 걸로 전략을 바꿔 봤습니다.” 처음 해보는 모금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학교 밖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이 마냥 어색한 4명이 생각한 것은 ‘좀 튀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색색깔 한복을 입고(민사고는 교복이 개량 한복이다) 비누와 홍보팜플렛, 어른들과 함께 가는 아이들을 유인할 사탕을 손에 쥐고 거리의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어린 학생들이 한복 입고 도대체 뭐하나? 구경오는 사람들, 나보다 어려보이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사진기를 들이대며 신기해하더라구요.” 남

앞에 서있는 자체가 쑥스러웠던 이들이 거리에 익숙해지면서 장애인재활병원건립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목소리 커졌다.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천 원, 이천 원 모금액도 쌓였다. 만 원짜리를 내는 분에게는 있는 비누를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단다. 매회 모금이 끝나고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는 게 여간 뿌듯하지 않았다. 천 원짜리가 열장이 넘어 만 원이 될 때 벽차오르는 감격은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단다. “첫 월급 탄 기분일까요?” 많게는 20만 원도 모금한 적이 있었다. 100만 원에 상당하는 벽돌 한 장 기부하려고 시작했지만 병원에서 보았던 아픈 아이들의 모습,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주는 푸르메재단 직원분들, 학교친구들의 동전 모금 그리고 하나하나 스스로 계획한 일이 성과를 거두는 그 기쁨에 1년 동안 이 모금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벽돌 한 장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모금을 더 많이 하나’ 내기를 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쭈뼛쭈뼛 눈치보며 망설이던 친구들이 목소리도 커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1년 동안의 모금활동을 마친 지금, 이들은 고3이 되었다. 안영란 양은 “입시 때문에 모금할 여유는 없지만 학교동아리를 만들어 후배들이 이 활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하며 후배들이 이어주기를 기대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이름 ‘G4모금원정대’

비누제조법을 몰라 마구 쏟아 부었던 수산화나트륨때문에 기름이 마구 부풀어올라 혼났던 기억 “버릴 기름을 어디다 쓰려고? 비누 만들면 우리도 줘요” 하시던 식당아주머니, 대학입시를 위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냐며 색안경 끼고 보던 친구들, 거리에서 비누를 팔 때 카페에서 멀찍이 지켜만 보던 엄마까지 모두 아름다운 사연으로 마음에 남았다. 그 당시엔 알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는데, 돌아보니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영란 양은 말한다.

‘G4모금원정대’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주셨다. 꽃미남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F4’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손발이 오그라들게도 ‘G4’ (Girl, Green, Give, Good)라는 이름을 지었다. 무심히 지켜보다가 가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넣고 가버리는 엄마는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게 지켜봐 주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영란 양에게 1년간 기부금모금은 아주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거기에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법을 익힌 것도 큰 공부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W



‘나눠먹자’에서 출발했지요



취재/백진영 기획홍보팀

졸업식이 한창인 2월의 어느 날, 전성실 선생님은 학교 졸업식 날, 뜻밖의 편지 한통을 받았다. “나눔, 배려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로 시작하는 한 장의 편지. 4년 전에 답임을 맡았던 반의 한 아이가 졸업식에 전 해준 편지였다.

‘나눔’과 ‘배려’를 처음 알게 해 준 선생님. 전성실 선생님(동광초)이 나눔교육을 처음 시작한 건 2004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름다운재단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을 무렵이다. 학교에서 나눔교육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을 만나게 됐다. 현재 전성실 선생님은 아름다운재단의 나눔교육센터 <나눔교육교사연구회> (GS칼텍스 후원)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교사들을 만나면 서로의 나눔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직접 해보니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생겼다. 나눔기사스크랩하기, 나눔장터, 간식 나눠먹기 등등... 이러한 사례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나눔교육 길라잡이>도 발간하고 나눔교구도 개발했다.

나눔교육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이들은 먹는 것에 민감해요. 매주 토요일, 1교시가 끝나면 간식시간인데 기껏해야 두 서너 명이 모여 먹어요. 이 틀을 조금만 건드려 주면 반아이들 전

체와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전성실 선생님은 거창하지도 않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일상 속에서 찾는다.

보통 나눔을 돈 기부로만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눔은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요. 사실 나눔교육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도덕이나 바른생활 책에도 나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다만 그 내용을 교과서로 끝내지 않고 틈틈이 실천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겁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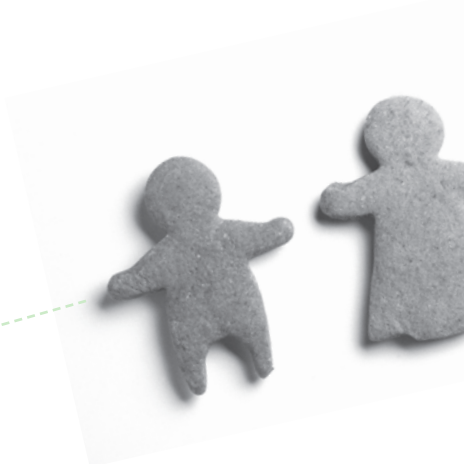
“나눔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돼요. 밥상나눔이라는 건데요. 우선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고 함께 얘기해보도록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밥상나눔’을 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는 부모님도 있었다. 학교에서만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눔을 해보는 것 역시 일상의 소중한 경험임을 강조한다.

나눠먹자, 나누자, 나눔

공책을 나눠주며 매일매일 나눔에 관한 기사와 애깃거리를 모아 나눔에 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눔장터를 열어 내 것과 너의 것 구분없이 나눠가지게 되면 ‘나누자’, ‘나눠먹자’라는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우리는 나눔반이야”라고 즐겁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성실 선생님은 뿌듯함도 느낀다.

물론 돈으로 하는 기부방법도 있다. 어린이날 받은 용돈의 1%를 기부하는 것. 점수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나눔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나눔교육을 법제화’ 하자는 말들도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면 나눔의 정의, 나눔의 효과를 외우게 해서 점수를 내야한다는 거죠.” 하며 안타까움을 비친다.

봄방학 기간에도 나눔교육을 위해 연구회모임에 나온 전성실 선생님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눔교육을 위해 최근 미국의 <Learning to Give>라는 프로그램도 견학했다. 또 핀란드, 스웨덴 등의 학교도 방문하여 그곳의 아이들도 만나고 돌아왔다.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니 행복한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 많이 부러웠지요.”라고 말하는 전성실 선생님. 우리의 아이들이 나눔을 하며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오늘도 무한 열공 중이다. W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사회조성’의 밑거름

글/조현옥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정치바깥에 머물렀던 여성들

한국여성재단은 2010년 배분사업 중 성평등사회조성사업부문 <여성정치참여사업>으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의 <2010 지방선거 여성후보+유권자 힘주고 힘받기 프로젝트 ‘여성이 똬다! 여성이 똬다!’>를 선정하였다. 지방선거 관련 사업으로는 이미 2009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2010 지방선거, 여성세력화 지원네트워크 구축사업 “2010 지방선거, 여성에게 날개를!”>이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렇게 여성재단이 지방선거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의회진출, 더 나아가서는 일반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성평등사회조성에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책정되어져 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정치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해 활동한 단체들이 있었지만 권위적인 정치체제 아래에서 여성운동의 이슈도 참여보다는 저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핵심 의제 범주에 들어오기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치는 여성이 실종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2000년까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3%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10여명 남짓한 정도였다.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고 여성의제 또한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밖에서 여성들의 권익을 주장해도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 내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 줄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운동 또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100인 여성후보운동 등 이어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1990년에 부활하면서 여성참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인식도 넓어졌다. 1990년 초부터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기 시작했고 슬로건도 내걸기 시작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당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연대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정치관계법 개정예에 비해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후 할당제가 보완되면서 여성들의 도전과, 실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은 39명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여성의원 비율은 3%에서 14%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견인해 낸 주체세력으로는 여성운동을 꼽을 수 있다. 여성운동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연대체를 조직하여 할당제를 위시한 다양한 법개정작업을 이끌어냈으며 여성후보추천작업, 여성후보교육사업 등을 진행시켰다. 특히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3년에는 324개의 여성단체가 결성한 총선여성연대를 조직하여 법제도화 운동을 벌였으며,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00인 여성후보 추천운동’을 벌여 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여성재단이 주축이 되어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을 주도하여 여성후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운동도 전개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성평등사회조성’의 밑거름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궁극적으로 여성의 권익보호,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나 언제나 그렇듯이 활동을 위한 자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성재단은 설립 이후 꾸준히 후보지원과 유권자 교육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과 2010년 연속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올해의 지원은 특정 여성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낮아진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역별 논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담론개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지역 민생과제 발굴, 여성후보 발굴 및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포럼, 토론회,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의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봉사 인력교육 및 지원활동, 유권자의 정치참여의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여성선거캠프지기 모집 및 교육, 체험사례 모집,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및 리셉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2009년의 여연 사업이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이었다면 올해 여세연의 사업은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후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거캠프 참모들을 길러내고 유권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사업들인 셈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여성재단의 지원은 지원액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적정비율을 차지하여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W



2010년 지방선거, 돈과 조직의 선거판을 바꾸자

글/한황주연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9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2010 지방선거, 여성세력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0 지방선거, 여성에게 날개를!”〉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4개 권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정치세력화의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각 권역별(서울, 대전, 울산경북, 광주전남)로 워크숍과 강의, 토론을 거치면서 한 발 앞서 지방선거 대비를 할 수 있었다. 광주전남 권역의 경우, 여성정치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며, 울산경북권역 역시 출마준비를 하는 여성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서울수도권의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선거 전략에 대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은 권역별 집행책임자들이 기획실행팀을 만들어 1년간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평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한다고 할 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각 지역 포럼을 진행하면서 여성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소통과 전략 설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의원들은 4년간 의회에서 일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느라 동료여성의원이나 여성단체들과의 소통이 어려웠지만,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동의 전략을 만든다면 향후 의정활동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여성의원들은 동여성회를 직접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으며 안심택시, 지역 해녀들의 지원 조례 제정, 자치구 여성정책과 설립 등 작지만 큰 변화들을 직접 발로 뛰며 이끌어냈다.

6월 2일, 과연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능력있는 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돈과 조직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한 여성들이 의회 진출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세력화 확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여성단체의 몫이기도 하다. ▼



풀뿌리 여성정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꽃 피운다

글/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여성이 행복한 성평등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특히 ‘중앙정치’와는 달리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정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역정치의 모습은 중앙정치보다 더 남성 중심적인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활정치’ 실현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일상의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여 여성운동이 자리매김한다면, 지역사회는 여성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공간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지방의회 여성참여’이다.

이번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0% 할당 등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아 의회에 진입한 여성 지방의원들이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선출직에 진출하고, 새로운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을 발굴해서 지방의회 여성참여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앞으로 지방의회 남녀동수 참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여세연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지방선거 여성후보+유권자 힘주고 힘받기 프로젝트 ‘여성이 똠다! 여성이 똠다!’〉프로젝트는 바로 선출직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지역구 선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후보들이 지역구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운 ‘조직과 돈’이라는 부담을 여성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선출직에 나서는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선거 자원봉사 캠프지기를 모집하여 기본교육 이수 후 각 여성후보 지역구 선거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유권자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구 선거참여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선거캠프지기 사례를 공모하여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여성재단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꾸며 ✈

UN NGO글로벌여성포럼 참관 및 미국재단 방문기

글/김유은·정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 엄숙한 느낌도 있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못할 누군가 저명한 분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언어 장벽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핵심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꾸준히 글로벌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활동가 글로벌리더십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종과 국경,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활동들을 지원해왔다.(후원처:삼성)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이 사업은 이제까지의 국제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폭넓은 정

보공유를 위한 ‘채널’의 체계화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의 사업 담당자로서 글로벌을 익히고 배우며 교류하는 취지에서 조형 이사장님과 2월 26일부터 6박 7일간 뉴욕을 다녀왔다.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 ‘NGO글로벌여성포럼’을 가다

낮선 뉴욕 지하철을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NGO글로벌여성포럼 현장이었다. 올해는 베이징여성대회가 열린지 15년이 되는 해인지라 많은 나라에서 NGO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1박2일 동안 열정적으로 토



〈Ms Foundation for Women〉의 대표 Sara Gould

“최근 미국내 여성문제에 대해 예전과 같은 참여나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산, 여성들의 건강등과 연계하여 부유층 기부를 장려하고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론하였다. 전 세계의 여성활동가들, 자원봉사로 참여한 구세군 소속 남성들, 대학생 등 다양하게 참여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그룹은 한사람 한사람 만날때마다 정성스럽게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를 전달하였고, 다른 여러 그룹들도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병행이벤트(parallel event)를 열심히 홍보했다.

활동에 대한 토론도 치열했다. 여성운동안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차이를 가시화하자, ‘여성문제’란 무엇인지 논의하자, 젊은 세대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성주류화를 넘어서는 활동 전략은 무엇일까,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쏟아져 나왔다. 전 세계 여성단체에서 5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인지라 토론의 깊이는 약했지만 이 모든 이슈의 토론과 해결방안 모색은 계속 발전시켜야하는 숙제로 남았다.

개인적으로 나에겐 젊은 세대의 참여가 크게 와 닿았다. 첫 세션에서 제기된 젊은 세대의 참여확대 발언 이후, 나는 어딜가나 ‘젊은 세대’라는 이유로 환영을 받았다. 새로운 전략모색에 젊은 세대의 참여는 필연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아울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의 여성NGO의 국제무대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찾다

뉴욕에서의 다음 일정은 재단과 단체방문이었다. 해외 재단과 단체의 국제활동을 알고 배워야 글로벌리더십 육성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Women’s Funding Network의 멤버입니까 (혹은 네트워크를 아십니까)’

어느 재단을 방문하던지, 제일 처음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Women’s Funding Network는 본래 미국 내 여성을 위해 일하는 재단들의 연합체인데, 국제화되어 현재 약 135개 이상의 ‘여성재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s funds라는 조직은 국제적으로 여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기금마련 전략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2개의 큰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Foundation Center의 최주원 박사는 Women’s Funding Network와 공동작업으로 ‘여성기금의 역할(The Role of Women’s Fund)’를 연구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1,200여개 여성기금을 조사해 데이터화했다. 그리고 연구조사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국제네트워크로서 재단의 신용도를 높힐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Ms Foundation for Women(이하 Ms)은 한국여성재단이 미국 등 해외에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더불어 미국의 기부문화 변화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37년 전에 창립한 Ms는 최근 미국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예전과 같은 참여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경우 ‘Ms’를 잘 모른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9.11이후 아프가니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에 펀드를 보내는 방식에 더 익숙해졌다고 한다. Ms의 대표 Sara Gould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산, 여성건강 등과 연계하여 부유층 기부를 장려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과거에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기부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Ms의 고민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지구상의 어떤 언어로도 지원이 가능한 ‘Global Fund’

그에 반해, Ms에서 이야기한대로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기금은 성장 중에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Global Fund for Women이다. 눈여겨 볼 점은 제안서를 낼 때 어떤 언어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Global Fund’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

‘Global Fund’는 소액 기금을 만들어 작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전략으로, 전 세계의 여성단체에 기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기금의 단위가 ‘5,000달러’로 상징화되어 있다. 우리가 많이 보아온 ‘3만 원이면 한 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간다’는 식이다. 마침 3월 4일에 Global Fund for Women에서 주최하는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가 있었다. ‘Women have solutions’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서는 약 200여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기부자와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골고루 참석했다고 한다. ‘왜 지역(local)이 중요한가’, ‘단체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이루어진 대담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한 사람들은 바로 Global Fund for Women의 지원을 받은 피지, 우간다, 터키의 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의미있는 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치는 박수소리가 마치 ‘내가 정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사회적 환경도 유리하게 변했지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도록 이성과 감성을 잘 활용하는 듯했다.

Acumen Fund는 다른 측면에서 재미있는 재단이다. 이제 막 시작하여 안정되지 않았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벤



처기업을 찾고, 이들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생겨난 ‘끈기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개념은 이들의 활동을 대변한다. 시간과 기대를 바탕으로, 회사가 안정되고 변화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운영자문(상품성, 제조, 디자인, 판매 등)을 하고 이곳에 투자할 다른 투자처도 적극 찾는다. 파키스탄의 모기장 회사, 인도의 정수기 회사 등 주거권, 건강권과 같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39개의 기업을 지원해서 10개는 상환을 모두 마쳤고, 현재 29개 기업에 투자가 진행 중이다. Acumen Fund는 집중된 영역과 전문화된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Acumen fund의 Molly Alexander(Business Development Manager)는 “사회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경쟁력 있도록 ‘재구조화’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했다. 전문화와 지속성이 곧 성공전략인셈이다.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탈락한 프로젝트

Foundation Center의 최주원 박사가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다. 최박사가 뉴욕 브롱스지역에서 지역조직화에 참여할 때, New York Women’s Foundation에서 지역조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공지되어 바로 지원을 했다고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리더가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라 최박사가 대신 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결국 선정되지 않았다. 탈락의 이유를 묻자 ‘지역조직을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너무 프로페셔널하다. 손 글씨로 쓴(당시에는 타이핑하기가 어려웠다고 함), 확실히 지역주민의 것이



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최박사는 주제와 지원결정과정에서 그 조직 특성을 잘 살려 운영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한다.

게다가 신속함과 지속성이 기부의 활성화를 더해주고 있다. Global Fund for Women의 뉴욕사무소 대표를 만난 며칠 후, 나는 ‘아이티와 칠레의 재건에 동참하는 위기기금’을 모으고 있으니, 모금에 동참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또한, 이들이 주최한 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는 위기기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동영상도 보았다.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음에도 아주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약 일주일간 단체와 재단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의미있고 신선한 활동을 접하기도 하였지만, 반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모두에게 당면한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디서나 첫 질문은 ‘활동의 성과측정을 어떻게 하세요?’로 시작하였고, 다른 세대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법, 성공적인 모금전략은 무엇인지 등은 모두에게 던져진 공통된 과제였다. 그래서 함께 머리 맞대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첫 만남과 교류는 그야말로 탐색이었다면, 이제는 국내외 구별없이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성화해나가는 것만이 당면 과제로 남았다. W





새처럼 자유롭게, 낯선 곳을 향해 하이킥 지영선과 함께 꿈꾸기 실습

글/오한숙희 사진/한경은

사람에게 꿈은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꿈을 물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장래의 꿈이 무엇이야’ 고. 그렇다. 꿈은 미래의 영역이다. 꿈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요, 꿈을 꾸다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열 살 때까지는 ‘꿈이 무엇이야’ 는 질문을 지겹도록 받는다. 스무 살까지는 그래도 꿈이 있었다. 그런데 서른이 넘고 나면 아무도 꿈을 물어보지 않는다. 마흔이 되면 피차간에 꿈을 잊는다. 신이 넘으면 꿈과는 무관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삶에 공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이 꿈이란 존재를 잃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꿈은 방에 나 있는 창이다. 꿈은 벽에 나 있는 문이다. 창을 향하는 순간이 충만이요, 문을 깨닫는 순간이 활력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언제라도 꿈꾸기를 멈추지 말자.

꿈을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자. 도전하고자 한다면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오늘이 우리가 살아 있는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 아닌가?” 그의 나이 환갑, 나는 당장 그를 만나기 위해 ‘문’ 을 열고 나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동시에 인간의 우울증이 가장 심해진다는 봄에 꿈을 부추기는 그는 수다의 상대로 최고가 아닌가.

지영선. 1949년생, 신문기자, 외교관, 현재 시민사회단체 대표. 요즘 유행하는 르네상스인(1인 다중직업)이다. 그것도 겉보기에 비슷한 업종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훌쩍 훌쩍 넘나든 조류형 르네상스인이다. ‘새처럼 자유롭게’ 라는 말을 떠올리고 보니 그의 마른 몸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살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 살이 안찌는 거겠죠?”자, 여기서부터 밑줄 긋고 들어가자.





꿈꾸기 핵심포인트 1. **바지런해야 한다.**

새들을 보라. 가장 일찍 일어나 온 세상을 누비지 않는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부지런해지는 사람은 현실의 사람이지만 무엇이라도 발견하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다. 꿈을 꾸자면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가 외교관, 정확히는 미국의 유명한 도시 보스턴(하버드대학이 있는) 총영사가 되었을 때 주변사람들은 물론 임지의 미국 사람들도 무척 신기해했다.

“어떻게 30년 넘게 기자였다가 다음날 총영사가 될 수 있나요?”

외교관은 그에게 ‘어렸을 적부터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오랜 꿈이었을까? 아니다. 그가 특임공관장(직업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발탁해서 대사나 총영사 등으로 임명하는 제도)이 되어보라는 조언을 들은 것은 50대 후반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평생 기자만 하던 사람이 별안간 외교관이 웬 말이냐’ 했단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생각하면서 ‘안 될 이유가 뭐지?’ 하는 의

문이 솟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30여 년간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열심히 기자 노릇을 하던 내가 어느 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외교관이라는 낯선 직업에 마음이 설레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망설임과 함께 그 꿈은 내 마음속에서 묘한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자, 또다시 밑줄 짚아.

꿈꾸기 핵심포인트 2. **꿈은 망설임과 버무려진 설렘이다.**

확신한다면 그건 이미 꿈이 아닐지 모른다. 땅 짚고 치는 해염은 얼마나 맛있게 권태로운가. 낯선 것에게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이야말로 꿈의 본질일 것이다. 모든 꿈에는 ‘자신없음’ 이 필수요소라고 할 때 꿈꾸기에 자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지영선은 말한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 그리고 유치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흠, 노력이라? 그것도 유치할 만큼이라... 마야호로 꿈꾸기의 난코스 진입이었다.

30여 년간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열심히
기자 노릇을 하던 내가 어느 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외교관이라는
낯선 직업에 마음이 설레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망설임과 함께
그 꿈은 내 마음속에서 묘한 긴장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지영선은 명문대 출신의 모범생에다 영어를 잘하고 독신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갑자기 그와 함께 하던 꿈꾸기 실습에 맥이 빠진다. 그러나 복병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공평하게도 그의 삶에도 만만찮은 어려움이 매복해있다.

그는 구순(90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 가야했는데, 워낙 고령에 타국의 객지 생활을 힘들어하셨다. 또한 외교관의 주요업무인 파티를 ‘마누라’ 없이 치러내야 했다. 독신은 자유인 동시에 늘 ‘가족 같은 사람’ 이 필요한 가문이었다. 그로 인해 정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도 적지 않다. 거기다 안검경련. 조금만 긴장하면 한쪽 눈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증세는 온갖 사람들 앞에 다양한 역할로 서야 하는 그에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름그대로 ‘복병’ 이었으니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이쯤 되면 ‘유치할 만큼’ 이라 표현된 노력이 얼마나 미세한 것들이었는지 짐작이 되리라. 갑자기 꿈꾸기 실습에 힘이 솟지 않는가.

바로 이 지점에 꿈꾸기 핵심이 또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명실상부 족집게!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환경 분야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니, 나는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그렇다. 꿈은 바로 행복이다. 인생에 꿈이 필요한 것은 행복 때문이다. 행복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듯이 꿈도 우리 인생 내내 필요한 것이다.

꿈꾸기 핵심포인트 3. 꿈을 찾아 가실 때에는 발밑에 복병
한 아름 사뿐히 **즈러밟고** 가시옵소서.

핑계 없는 무덤 없듯,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99가지도
넘는다. 복병을 머리에 이고 복병에 깔려 사느냐, 발밑에
놓고 밟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작년 봄 그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그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자생활을 하던 초기부터
였으니 녹록치 않은 관록이지만 환경운동가가 된다는 것
은 그의 말대로 가볍지 않은 변신의 숙제였다. 게다가 대표
직을 제안 받은 시점이 그 단체의 위기상황이었다.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환경 분야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니, 나는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그렇다. 꿈은 바로 행복이다. 인생에 꿈이 필요한 것은
행복 때문이다. 행복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듯이 꿈도 우리
인생 내내 필요한 것이다.

오늘도 18매 지면이 짧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실
습교과서가 있다. 지영선이 그의 경험을 기자가 아닌, 주
인공이 되어 쓴 <링컨타운카를 타고 보스턴을 달린다>(이
매진 출판사, 2010)이다.

33년을 신문에 문혔다가 새처럼 날아 보스턴의 링컨카
에 살포시 앉아 2년여를 보내고 다시 날아와 우리 강산의
지킴이로 바지런한 날개 짓을 쉬지 않는 지영선. 우리가 만
난 목요일, 그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다가 나하고 자장면
을 먹고는 냅킨으로 입을 닦자마자 해남 땅끝마을의 미항
사로 훌쩍 날아가 버렸다.

부럽다.

울봄 나도 반드시 꿈을 찾아 나르리라. 핵심 포인트 1, 2,
3을 품었으니 링컨카가 아니면 어떠랴. 모든 꿈은 이미 화
려한 법인데. 더구나 창밖에 봄꽃들이 손짓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문을 두드리지 않는가. W

오한숙희 | 친근한 이웃집 아줌마 오한숙희 씨는 여
성들의 일상을 '수다'로 풀어내 마음의 치유를 돕는 수
다전도사이다. 방송과 집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
여성재단의 기획홍보위원으로서 발 닿는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



여성
과
마음



작가 토마는 윙크의 <신경 쓰이는 친구> 단편으로 데뷔. 인터넷에 <선생님과 나> <크래커>, 만화잡지 팜툰에 <속 좁은 여학생>을 연재했다

화초를 나누면서, 성장을 나누면서

글/윤혜린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소장, <베란다 정원의 철학> 저자

어떤 지인이 큰맘 먹고 한강변에 작업실을 열었다. 신세 진 일도 많고 축하도 할 겸 작은 식물을 들고 가고 싶었다. 집안 곳곳을 쳐다보았다. 컴퓨터 책상 위의 사랑초는 꽃도 군데군데 피어 있고 스타일도 괜찮았지만 해바라기를 하느라 몸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흠이었다. 연분홍 꽃을 피우는 제라늄은 요즈음 참 예쁜 색깔을 올리고 있는데 역시나 화분 한 편이 허전하다. 달포 쯤 지나면 강기아난 몇 포기가 향기 진한 꽃망울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두루두루 살펴도 참 마땅한 것이 없다. 속편하게 꽃집에서 하나 살까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우리 집 식물들의 고군분투기

우리 집에는 베란다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식물이 꽤 많은 편인데도 이처럼 누구에게 선물할 계제가 되면 마땅하지가 않다. 사실 그네들의 역사성을 세세히 설명해준다면 어느 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없을 거라고 자부하지만 그 사연을 전달하기란 좀 번거롭다. 몇 해 전 학교 생협에서 열린 식목

일 행사 때 2천원 주고 들여온 한 뽕자리 고무나무가 지금은 내 가슴 높이로 커가는 벽찬 성장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해마다 한층씩 몸체를 올리고 있는 선인장이 이제 4층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분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식구 성미 닮아간다고 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단장을 못하는 나를 닮아 이 친구들 물골도 그리 깨끗이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가 지인들께 나누어주시는 게발선인장이 하나 같이 예쁜 것에 비하면 나는 아직 역부족이다. 우리 집 식물 식구들의 공통점이라면 그저 자기 맘대로 줄기를 뻗고 가지를 쳐가는 자유로움을 발현하고 있다는 것 정도다.

그래도 최근에 가장 큰 감동을 준 녀석들이 있다. 지난 초가을 무렵 산세베리아 밀둥이 문드러지면서 기다란 잎줄기가 하나둘씩 자빠져서 큰 일이었다. 과감히 속아서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혹시나 하고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만 남은 토막을 뒀다. 어디선가 그냥 바로 꽃지 말고 이삼일 말리고 난 후 꽃으라는 말을 들었던 차라 그대로 따라했다. 수분이 말라가면 “아 이대



로 죽으면 안 되지” 하는 심사가 들어 자신의 생명력을 온통 분출할 것 같기도 했다. 스티로폼 상자에 구멍을 뚫어 만든 임시 화분을 후미진 그늘에 두고 두세 계절 잊어버리고 있었으리라. 해가 바뀐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실컷 늦잠자고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 베란대를 둘러보는데 산세베리아 새끼들이 흙을 뚫고 나오고 있었다. 마치 새끼 제비들이 부리를 모아 어미에게 종알대는 그런 모양새였다. 가슴이 쿵쥔거렸다. 재네들이 또 나를 안일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내게 자꾸 분발하고 노력하고 씨 뿌리라고 하는구나. 이 산세(산세베리아의 줄임말)아기들은 어미의 몸체에서 나왔으니 체세포 생식인 셈이다. 나는 이왕 재미가 들린 터라 아파트 주변에 버려진 산세베리아들까지 꽃아 두었으니 앞으로 꽤 많은 아기 산세들이 생겨날 것이다. 완전한 봄이 되면 그것들을 작은 토분에 담아 지인들과 하나씩 나누어 생각을 하니 흐뭇하다.

식물들의 안부를 묻다

예전에 스킨답서스를 몇 십 분께 나누어드린 적이

있다. 그 후 그분들을 뵈 때마다 물꽃이 상태로, 벽걸이용으로, 보통은 일반 화분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흐뭇한 소식을, 혹은 이사 갈 때 없어졌거나 죽었다고 하면서 미안한 소식을 전한다. 그네들의 안부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새롭다. 내가 입양시킨 식물들이 잘 안착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나눔의 릴레이 대열에 서게 될 가까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눔은 새끼치는 일이다. 이자를 새끼치기보다 사랑을 새끼치는 일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는 시장경제의 패배라고 말하고, 여성철학을 하는 나는 나눔 생활양식의 단조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모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힘을 합치는 법을 공짜로 배우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나누고, 교환 없이 주는 새끼치기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 식물 중에 ‘세상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홍색 꽃을 피우는 제라늄과 내 꿈은 닮은꼴인가 보다. W





넌 바쁜데도 일하는 게 재밌어 보여

글/이보람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4학년

☀ 내가 꼭 해야 해?

“난 사회복지 할 거야!” 친구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슴없이 내가 내뱉었던 말이다.

노인복지 분야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네가? 사회복지를?” 하며 의구심을 품었던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교과 이수 과정에 포함된 사회봉사로 ‘꽃동네’로 봉사활동을 다녔고 그 때까지 자원봉사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발적이기보다 의무감과 희생으로만 행했던 나의 자원봉사는 “내가 꼭 해야 돼?”라는 짜증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공부를하면서도 자원봉사를 같이 가자는 친구들의 손을 온갖 핑계들로 뿌리치곤 했다.

☀ 함께 들고 가요, 그러면 덜 힘들고 더 기분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신기학교란 곳이 있는데 가볼래?”라고 제안을 하였고 새로운 곳이라는 호기심 반, 또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걱정 반으로 신기학교를 가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내려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간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2박 3일을 채우지 않고 집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도착했던 신기학교는 캠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궁이에 땀감을 넣어 난방을 하는 이곳에서의 첫 프로그램이 바로 산에서 나무를 해 오는 것이었다. 가파른 산에 올라 나무를 두 팔 가득 안고 갠깁거리며 내려오는 나에게 한 남자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내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선생님, 함께 들고 가요. 그럼 덜 힘들고 기분도 더 좋아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로 나의 2박3일은 희생이 아닌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변해갔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는 시간이 마냥 재밌고 행복했다.

그 뒤 신기학교로 봉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봉사는 의무적으로 “돕고 싶어요”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기보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 안에서 모두가 부대끼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라고 느껴졌다.

☀ 내가 배운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신기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꼈지만, 복지 행정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그 속에서의 봉사활동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과 만나면서 함께 하는 활동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지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것들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동계실습을 하게 되었다.

‘희망키움뱅크’라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쌓여있는 서류정리로 실습의 중반을 보내던 어느 날, 나와 같이 실습을 하던 학생이 “넌 바쁜데도 일하는 게 재밌어 보여”라고 말해주었다. 순간 나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나의 경험상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적인 희생으로 행복한 감정이 없는 봉사를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내가 진정 여기에 함께 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여성재단에서의 활동은 봉사라고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갔다는 점에서 봉사와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할 때 봉사의 가치는 배가 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요리교실 활동을 하는 것이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필요로 하고 함께 하고픈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여 먼저 “함께 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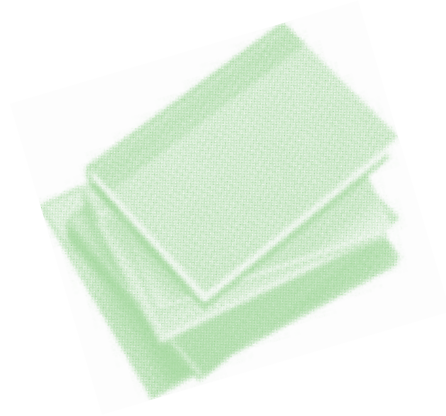


건설회사가 책을 읽고 나누다고?

사람사랑, 문화사랑을 실천하는 우림건설

취재/신미숙 기획홍보팀장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에 기업메세나대상 '창의상'을 수상한 우림건설. 매출 7천 억 규모의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책임을 다하려는 속 깊고 따뜻한 사연을 이상엽 전략기획부 부장을 만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림건설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유난히 '사람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회공헌활동'을 한마디로 소개하신다면?

소통과 융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구성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기업의 장점인 효율성과 시민사회의 가치지향성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업이 시민사회와 만나서 가치지향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효율성과 마케팅 분야 등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각자 영역의 활동이 융합될 때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사회에는 아직 이런 점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회활동을 할 때도 공급자, 기업 입장에서 설



우림이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도서관을 짓고, <우림나눔도서관>에 책도 함께 기증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지 앞에 시비(詩碑) 건립도 많이 하는데, 지역문화 확산과 지역 문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계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가장 잘 아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설계해야지요. 이 과정이 바로 소통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강조하는 사회공헌활동 분야는?

시작은 1997년 직원 급여우수리나눔, 집수리 지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입사 초기 시절부터 사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3~4년 지나니까 제대로 해 보라고 일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람사랑, 문화사랑, 책나눔 분야 등으로 서서히 확대되었어요.

<사람사랑> 분야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복지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라면 어려운 처

지의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 활동도 함께 지원합니다. 세상이 건강해지려면 개인지원 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하지요. 이런 게 정말 가치있는 사회공헌이고 생각해요. 제도는 개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문화사랑> 분야에는 전통문화, 기초예술, 스포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림평키하우스, 우림청담씨어터 등의 문화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야가 아마도 <책나눔 활동> 분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월 7천여 권의 책을 회사 임직원 및 가족, 군부대, 시민사회 단체, 협력업체 등과 나누고, 함께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림이 건설하는 아파트에는도서관을짓고,<우림나눔도서관>에 수 천 권의 책도 함께 기증합니



건설회사가 책을 읽고 나눈다고? 하는 비아냥도 있었는데, 꾸준히 하면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속하면 진실이 되는 거지요. <독서경영>, <도서나눔>등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업메세나대상 ‘창의상’을 받기도 했어요.

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 앞에 시비(詩碑)건립도 많이 하는데, 지역문화 확산과 지역 문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주민 소통, 주민자치가 구호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지원 콘텐츠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사회공헌이고, ‘사람중심, 사람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독서경영>에 대해서 더 소개해주시죠? 수많은 건설현장을 가진 회사에서 직원들이 책을 읽는다? 생소하기도 합니다.

건설회사가 책을 읽고 나눈다고? 하는 비아냥도 있었는데, 꾸준히 하면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속하면 진실이 되는 거지요. <독서경영>, <도서나눔>등으로 2005년에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업메세나대상 ‘창의상’을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 회사 직원들도 책 많이 읽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독서공간을 만듭니다. 건설회사의 특성상 본사-현장 등으로 직원들이 분산해서 근무하다 보면,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책을 읽고, 소개글과 회사 운영 방침, 회사의 최근 상황 등을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지요. 직원들은 그 책을 읽고 회사에 대한 기대, 요구사항 등을 함께 적은 독후감을 회장님께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념, 삶의 철학 등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지요.

특히 책 속에 담긴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개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도 책을 통해서 하청업체 직원 소통, 건설 관리 등을 더 꼼꼼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문화에 맞는,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우리 회사가 돈으로 사회공헌을 하면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지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 이것이 회사의 특성화 사업이 되는 거지요.

○ 작년에 회사 워크아웃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사회공헌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떠신지요?

저희는 오히려 작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배우, 시민 사회운동가 등이 직접 구전으로 우림을 홍보하

니다. 웬만한 대기업보다 긍정적인 내용의 언론 노출빈도가 더 많은 회사가 우림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발표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 격려편지를 받았습니다. 입사 15년 동안 가장 많은 격려를 받은 해입니다. 시간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새삼 느꼈지요. 건설회사가 사회공헌에 그것도 <독서경영>을? 이렇게 보시던 많은 분들이 일관되게 하니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지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에 큰 힘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게 사회공헌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는 것, 이것이 회사구성원과 사회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지요.

○ 여성재단과는 여성NGO활동가 장학사업을 7년째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기업은 모든 활동을 정량화하기를 좋아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은 가치지향성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 고려, ‘가치’를 고려하는 드문 분야입니다. 그 가치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정말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 셈이지요. 활동가들이 졸업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 학습의 결과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공익 에너지로 발산해 내는 것을 보면 정말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 여성재단과의 파트너십은 어떠셨는지요? 조연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재단은 ‘여성성’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창한 구호보다는 더 섬세하고, 더 치밀하게 실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금과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을 소중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상품성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효과성,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다른 재단에 기부를 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케팅, 홍보전략 등을 강화해서 여성재단의 가치를 더 널리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가치를 중심에 두되, 모금과정에서는 그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W

우리는 길 위로 연결되어 있다

제주올레 여행과 나눔

글/정박미경 자유기고가, <남자는 초콜릿이다> 저자

비우려 가는데 뭘 그리 채워 넣으려 하는지

제주도 올레 여행을 다녀왔다. 마음 같아서는 보름정도 날을 잡아 전 코스를 완주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대여섯 코스만 가보자 싶어 일주일 일정으로 집을 챙겼다. 여행을 위해 집을 꾸릴 때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을 꾸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놀란다. 삼푸 챙기면 드라이기도 챙기고 싶고 헤어 젤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한다.

쾌적한 여행을 위해 속옷이며 양말 등은 넉넉히 챙기고 싶고, 한적한 도보 여행길에 멋진 음악이 빠지면 되겠냐 싶어 애플시리에 음악파일을 잔뜩 집어넣다가, 제주도의 풍경을 담을 카메라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이것저것 집어넣어 터질 것 같은 배낭을 바라보고 있자니,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다. 내 감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모습, 딱 그것이다. 제주도 바람에 몸과 마음을 비우고 오려는 사람이 출발하면서부터 또 무얼 그리 채워 넣고 있는 것인가? 잠깐의 쾌적함과 안락함조차 포기하기 싫으면서, 집 떠나는 불편함을 조금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여행은 왜 하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결



국 이런 저런 잡동사니를 배낭에서 다시 꺼내고, 먹고 자고 걷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짐만 꾸린다. 배낭을 꾸리면서부터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여행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한결 날씬해진 배낭을 보니 이제 떠나도 되겠다 싶다.

제주도 도보여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 제주도를 걸어보겠다고 홀로 배낭여행을 했을 때는 아직 올레길이 열리기 전이었다. 그때의 도보여행이란 그저 나만의 판단으로 제주도의 걷기 좋은 곳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걷는 식이었다.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숲이며 오름들을 나 홀로 즐겼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제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몇 년 전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창립되어 제주 구석구석 숨어있는 아름다운 길을 여행코스로 발굴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었다. 제주올레의 서명숙 대표가 쓴 <놀멍 쉬멍 걸으멍 : 제주 걷기 여행>을 출퇴근 지옥철 속에서 읽으며 제주의 바람과 들길을 온몸으로 그리워했던 내가 드디어 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길을 걷는 나그네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

원래 '올레'는 동구 밖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의미하는 제주도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 그것이 올레다. 지친 몸을 품어주고 노곤한 마음을 감싸주는 올레길처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길을 만든다'는 신념이 올레길 도보여행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주올레는 잊혀지고 끊겨버린 이름모를 길들을 이어 올레 여행길을 열었다. 지금까지 열다섯 개의 길이 열렸고 그 길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나의 이번 올레 여행은 2코스에서 시작해 3코스를 거쳐 9코스와 10코스를 경유하여 13코스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짰다. 지역으로 보자면 성산 광치기 해변에서 시작해 온평포구와 당케포구를 거쳐 대평과 화순, 모슬포항을 경유, 저지리에서 끝난다. 제주 바다와 중산간, 오름을 다 걸어보고 싶은 욕심에 일정이 이렇게 된 것이다.

제주도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초록의 세계다. 그동안 제주도를 예닐곱 번 다녀갔지만 이처럼 신록이 눈에 확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도 유난히 촉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다 왔기 때문이라. 제주는 이미 유채꽃이 만



개할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해 있었고, 어디를 가도 초록과 연둣빛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저쪽 농장에는 감귤과 한라봉의 나뭇잎들이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한 신록을 뽐내내고 있었고, 이쪽 밭에는 무와 마늘, 보리, 양배추 등이 다채로운 연녹색으로 싹싹 자라고 있었다. 성산 지역에는 유난히 무밭이 많았는데, 민박집 할망 말을 들어보니 몇 년 전부터 도청에서 감귤나무를 갈아엎고 무를 심도록 독려한 탓이란다. 그래서인지 이미 수확을 끝낸 감귤나무에 한두 개 달려있는 귤의 주황빛은 초록을 배경으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중산간의 돌담을 바람막이 삼아 흙을 박차고 얼굴을 디밀고 있는 무, 스쳐지나가는 나그네의 손길을 맞아주는 깊고 큰 눈망울의 조랑말들, 내 불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바다의 푸른빛을 전해주는 바람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사이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갈매기들, 제주 올레 길을 걷는 나그네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에 나는 두고두고 감격한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평일인데다가 곳은 낯선 때문인지 올레길을 걷는 올레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길 위에서 나는 이 작은 올레길이 만들어가고 있는 큰 변화를 실감했다. 머무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여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누군

가에게 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올레길 중 많은 지역은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사유지임을 굳건히 표시했던 철조망이 헐리면서 끊어졌던 길이 이어졌다. 단지 스쳐지나갈 뿐인 이름 모를 여행객들을 위해 길을 내어준 사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울타리를 치고 타인의 접근을 금하는 것이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는 이였으리라. 그가 아니었으면 많은 여행객들은 진입금지라는 표지판 앞에서 주춤거렸을 것이라 생각하니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이 든다. 끊어진 길을 복구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이들도 있다. 올레꾼들에게는 이미 유명인사가 된 김수봉님과 해병대, 특전사들이 그들이다. 고향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길을 찾는 이들을 사랑한 수봉님은 곡괭이와 삽으로 길을 손수 복원했다.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주는 일도 아니었던만, 그는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고 계단을 만들어 길을 이었다. 해병대와 특전사들은 안전한 해안길과 아름다운 숲길을 열어주었다. 돌 하나, 나무 하나에 그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길을 나는 걸었다.

나누며 공감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

그렇게 이어진 길 위에서 나눔은 계속되고 있었다. 중산간의 돌담 위나 올레길 표지판 옆에는 수확하고 남은 귤들이 올레꾼들을 기

다렸다. 상처 나거나 못생겨서 상품으로 내다팔기는 힘들지만 맛만은 최고인 제주도 감귤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에 충분했다. 13코스 낙천갯길로 향하는 표지판 옆에 아예 자루 째 감귤을 갖다놓은 이도 있었다. 두 개를 까먹고 두 개는 주머니 속에 넣으면서 나는 마음속까지 해갈되는 느낌이었다. 이렇듯 봉사와 나눔으로 만들어지고 이어진 올레길이기에, 올레길 위에서 만나는 올레꾼들은 모두 행복해보였고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 했다. 혼자서, 혹은 둘이, 혹은 때 지어 다니는 올레꾼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동지애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것은 오롯이 혼자 길 위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격려가 아니었을까.

나는 올레길을 걸을수록,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뿌리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길을 내어준 사람, 끊어진 길을 이어준 사람, 그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즈려밟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의 목마름을 염려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여성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산티아고 길을 걷다 제주의 아름다운 길을 떠올리고 팔을 걷어붙인 서명숙 대표와 제주올레, 나그네를 위해 소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민박집 할망, 다시 힘을 내기 위해 혼자만의 여행을 감행한 이름 모

를 여성 올레꾼들까지, 올레길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뿌리에는 여성들이 있었다. 제주 설문대 할망의 신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랴.

오로지 내 발로 걸어아만 하는 길, 나의 한발자국이 만들어내는 힘을 느끼는 길, 걷다보면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길,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길, 홀로 길을 걷지만 나의 길 위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길, 그래서 올레길은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다. 떠난 사람과 맞아주는 사람, 만들어가는 사람과 향유하는 사람이 나눔과 공감으로 길 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올레길 위의 화살표는 서로에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화살표 같다. 조용하고 한적한 올레길 위로 흐르는 사랑과 나눔의 에너지, 그것을 경험한 이의 삶은 예전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삶,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임을 문득 깨닫게 된다. 이렇듯 올레길은 여행을 넘어 일상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봄, 내가 무심코 채워 넣은 게 너무 많아 일상이 버거워진다면, 올레길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나눔의 에너지가 사랑이 되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W



기부 참 쉽지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부사용설명서

글/백진영 기획홍보팀

새해를 맞았는데 여전히 우울하신 분, 펀드 값이 문 어두었다가 깊게 상처받으신 분, 사람 사는 세상에 정(情)에 굶주린 분들에게 아주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기부, 나눔입니다.

우선 이 처방전은 사이비가 아닙니다. 실험과 설문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선, 과학계에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3만 미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 비율이 43% 더 많았고, 이 수치는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망감”을 느낄 가능성이 68% 낮다고 합니다.

기부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럼 설문내용 말고도 진짜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선행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19명의 여학생들에게 1백 달러를 주고 뇌의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

해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고 했지요. 그 결과 기부를 선택한 학생들의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뇌의 ‘보상센터’라는 곳은 달콤한 것을 먹었거나 돈을 받을 때 반응하는 곳으로 보통 기부를 할 때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수반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에 생기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체내분비가 감소하고, 면역체계 강화 심장 혈관 순환이 촉진되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기연민이나 소외감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베풀음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니 선행 마음으로 풍요로워지겠지요?

이만하면 그 효능에 대해 인정하시겠지요? 그런데, 기부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잘 안되신다고요? 하고는 싶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한 실천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읽고 따라만 하면 됩니다.



4. 안 쓰고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쓰면서도 잘 쓰는 것이 나눔입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과 유통구조를 변화시킨 공정무역커피, 공정무역여행, 공정무역초콜릿,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직거래유기농산물, 인세의 일부를 기부하는 작가들의 책, ING생명처럼 미래를 약속하는 보험, 신한카드처럼 신용카드를 쓸 때 생기는 포인트, G마켓처럼 상품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인터넷쇼핑몰도 아주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다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4 참조).

※ 특정상품을 광고한다고 생각하신 않으시겠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편집팀의 착한 의도입니다.

5.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도 기부할 수 있다네요. 사이트를 찾기도 귀찮으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가는 길에 잠깐 둘러보심은 어떨까요? 네이버나 싸이월에 음악이나 글씨 폰트 사려고 충전해 놓은 쿨이나, 도토리는 기부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성재단에도 정기적으로 도토리와 쿨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은 닉네임이나 별명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기부천사들이랍니다.

6. 약간의 보상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 기부내역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신 금액을 다시 기부하신다면, 치유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눔 파급력이 커져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

처방에 따른 주의 사항: 무엇보다 위와 같은 나눔으로 인해 그 효능이 즉각 나타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효과만을 바라고 스펙을 위해 하신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서적 나눔이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 아르게 물에 빠진 아이구하기 / 산책자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 한겨레출판

1. 계절이 지나가는 환절기에 옷 정리하세요. 최근 2~3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눈에 띄면 그건 필시 내년에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다이어트 성공한 후에 입으려고 한 옷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행이 지날 테니까요. 눈치 채셨죠? 깨끗하게 빨아서 아름다운가게나 복지관에 갖다 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소중하게 입을 겁니다.

2. 특별히 관심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 장애인, 문화, 환경 등 인터넷 검색기능의 도움을 받으시면 해당 재단이나 협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이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여성재단은 현장에서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는 역사가 깊은 재단입니다. 기부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가끔 둘러 글도 남겨주시고 방문도 환영합니다.

3. 뭐니뭐니 해도 머니죠.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해주신다면 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잘 되겠지요? 한 달에 한 번만 커피한잔 값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카드가 일상화되니 동전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시죠? 주머니 속, 테이블위에 덩그러니 외롭게 놓여있는 동전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세요. 바로 저금통기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체험하실 수 있겠네요.

인생은 아름다워?

글/박혜란 여성학자, 작가

아 직도 몸이 뽕뽕한 나이 든 코미디언이 농촌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와 노래를 시키는 TV프로그램이 있다. 제목은 무슨 ‘실버’ 니 ‘고향’ 이니 ‘늘푸른’ 같은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게 대여섯 번이나 되는데도 정확한 제목이 뭔지 항상 헛갈린다. 관심 탓인지 나이 탓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수많은 채널 가운데 겨우 숨을 지탱하고 있는 희귀한 노인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거두절미하고, 난 이런 프로그램이 싫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소위 노인프로그램이란 것들은 하나같이 겉으로는 노인들을 대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을 희화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명색이 공영방송 또는 준공영방송이니 구색으로나마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해야겠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봤자 자칫 따분하고 구질맞은 분위기로 가기 십상이니 진행자라도 웃기는 사람을 써야겠다는 제작자의 의도야 가늠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내 쥐어 짜내는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듣다 보면 ‘인생은 즐거워’ 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 공허해’ 라는 생각만 더 커져 가니 내가 너무 까칠한 건가.

우선 묻는 내용이 어찌면 그리도 천편일률적인지. 언제 결혼했느냐, 첫날밤이 어땠느냐, 상대방이 맘에 들었느냐,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상대방과 결혼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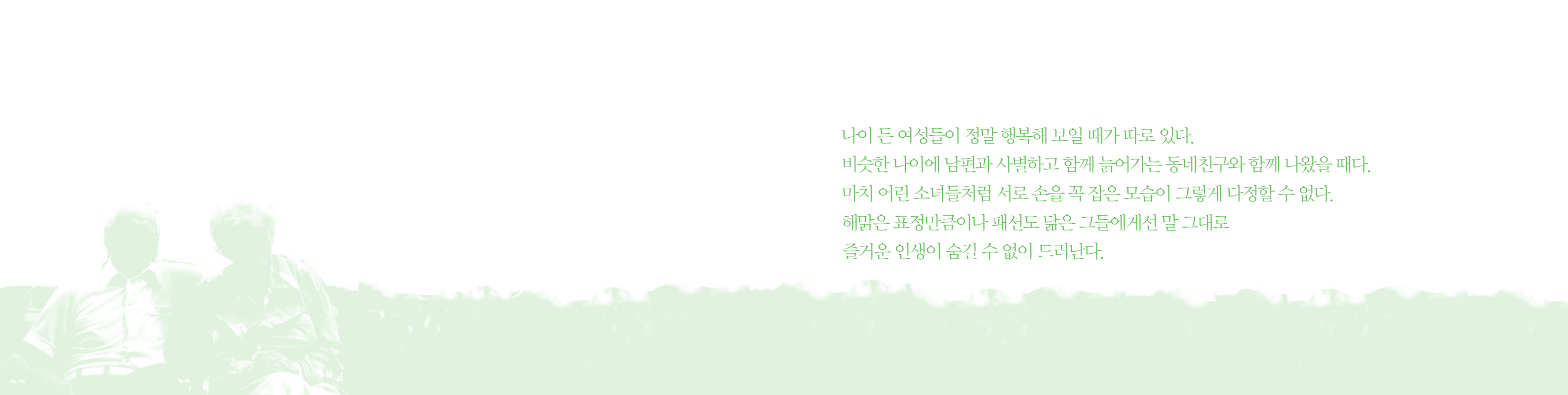
그리고 그 말투라니. 기끔씩은 존댓말도 들리지만 대부분 어정쩡한 반말투다. 60대고 80대고 모두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 듣기 거북한 건 또 있다. 진행자와 나이차가 별로 안 나는데 ‘어머님’ ‘아버님’ 이란 호칭을 남발한다. 우리 정서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개 씨’ 라고 부르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아닌 것 같다. 모든 노인들을 부모처럼 받들자는 가목한 충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오버다. 그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방송에서만이라도 가족적 호칭을 벗겨 주는 것이 예의다.

대안없는 비판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제안은 어떨지. 쿨하게 이름을 부르고 그 뒤에 ‘선생님’ 이나 ‘여사님’ 을 붙이면 어떨까 싶다. 아니면 그 흔한 ‘어르신’ 이란 호칭도 있잖은가. ‘아무개 어르신’ 이라고 불러도 무난할 것 같다. 오랫동안 이름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도 이참에 이름 한 번 확인할 겸.

까탈스럽게 흠을 잡았지만 일단 이 프로가 눈에 띄면 난 끝까지 본다. 형식은 식상하지만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의 솔직함과 당당함은 언제 봐도 매력적이다. 재미있는 건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남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나이 든 남자들은 주눅 들어 보이는 반면 여자들은 활달하다. 성격도 성격이지만 풍채부터 다르다. 남자들은 대부분 쪼그라든 인상인데 여자들은 얼굴이 빛난다.

그들은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역시 비슷하게 가난한 농촌으로 시집을 왔다. 거의 모든 시어머니들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고 거의 모든 남편들은 주사가 심했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도 드물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대로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온몸으로 묵묵히 살아냈다. 너무 힘들어 집을 나갔다가도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왔다. 죽어도 시집 귀신이 되어야 하기에. 일평생을 집 안팎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며 시부모를 봉양하며, 시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적지 않은 아이들을 낳아 키웠다. 때론 남편들이 외도를 밥 먹듯 해도 그저 눈감고 살았다.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배웠기에.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 뒤를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자부심 한 편으로 오로지 참고 견디어 온 과거에 대한 회한이 피어오른다. 그들은 이제 회한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으시죠?”

이 어리석은 질문에 그들은 열이면 열 똑같이 대답한다.

“안살아!”

옆에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된 여성이거나 한결같다. 멋쩍어진 진행자는 말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때로는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한다.

“그럼 어떤 분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면 난 시집 같은 거 안 갈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요?”

“옛날이라 여자는 다 시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시집 같은 거 안 갈 거야. 그냥 나 혼자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훨훨 자유롭게 살 거야.”

“자제분들은 어떡하고요? 어머님, 자제분들 다 키우시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 혹은 자유자재로 봤지만 자녀들 문제만은 아직도 걸린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지금대로 잘 사는데 늙은 엄마가 무슨 소리를 못할까.

“지나간 세월이 억울해서 그래. 하이고, 지지리도 고생하고 살았어.”

뉘라할 것 없이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듣고 있노라면 인간극장이 따로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마치 개그콘서트처럼 가볍게 펼쳐진다는 데 있다. 모든 출연자의 인생은 그저 재미있는 말장난처럼 들린다.

나는 궁금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넘쳐흐르는 저 웃음소리는 제작자에 의해 유도된 것일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분출된 것일까. 청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마을 여성들은 누가 말하든 나오는 대답 한 마디 한 마디에 까르륵 넘어간다.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까르륵, 다시는 시

나이 든 여성들이 정말 행복해 보일 때가 따로 있다.

비슷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함께 늙어가는 동네친구와 함께 나왔을 때다.

마치 어린 소녀들처럼 서로 손을 꼭 잡은 모습이 그렇게 다정할 수 없다.

해맑은 표정만큼이나 패션도 닮은 그들에게선 말 그대로

즐거운 인생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집 안 간다고 해도 까르륵, 심지어는 집을 나갔었다는 말에도 까르륵,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까르륵, 남편의 외도상대를 찾아가 머리채를 휘어잡았다는 말에도 까르륵.

지나간 인생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일까. 모든 인생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일까. 마지막으로 진행자는 늙은 아내 옆에 께다 논 보릿자루처럼 서 있던 늙은 남편을 야단치듯 유도한다. 마나님에게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게.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남편은 착한 유치원생처럼 서툴게 따라 한다. 까르륵 짹짹. 아직은 끝이 아니다. 판에 박힌 주문이 이어진다. 두 분이 끌어안고 뽀뽀하라고. 착한 유치원생들은 어색한 폼으로 주문에 따른다. 까르륵 까르륵, 짹짹. 조그만 마을에 행복이 넘친다.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다. 참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짧은 날 고생 좀 했다고 해서 인상 쓸 거 없다. 평생을 주사와 폭력에 시달려도 남자는 으레 그러려니 받아 주어야 한다. 늙으면 남는 건 부부뿐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 보다.

하지만 그런 억지스런 메시지보다 프로그램은 가끔 엉뚱한 곳에서 참신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이 든 여성들이 정말 행복해 보일 때가 따로 있다. 비슷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함께 늙어가는 동네 친구와 함께 나왔을 때다. 마치 어린 소녀들처럼 서로 손을 꼭 잡은 모습이 그렇게 다정할 수 없다. 해맑은 표정만큼이나 패션도 닮은 그들에게선 말 그대로 즐거운 인생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혹시 이게 진짜 메시지? W

이 글은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삶의 여성학>, <나이들에 대하여> 등을 저술한 여성학자 박혜란님이 작품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첫 삽을 뜨다!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소개 1



한국여성재단이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함께 할 14개 단체를 선정했다. 총 지원금액은 1억 8천만원으로, 이 기금은 2009년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금과 일반후원금, G마켓 후원금으로 조성되었다. 지원단체 선정을 위해 총 5차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첫걸음으로 사업안내 워크숍이 지난 1월26일에 개최되어 이번 사업을 수행할 파트너단체 실무자와 배분위원들과의 진지한 토론과 사업성공을 위한 다짐 등을 함께 했다.

최종 선정된 지원단체는 서울 이외의 단체가 전체지원사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여성들에 의해 조성된 '광주여성기금' 지원사업으로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의 "가출청소년의 휴게소 1318번호 아지트"가 선정되어,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NO	단체(시설)명	사업명
1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 피해상담소 언니네	가출청소년의 휴게소 "1318 번호 아지트"
2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성인지예산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성행동
3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함께 행복해지는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4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지방선거 여성후보+유권자 힘주고 힘받기 프로젝트 "여성이 된다! 여성이 뜬다!"
5	열린복지 부설 열린여성센터	홀리스·주거불안계층 여성의 부업프로그램 "희망일터"
6	용인성폭력상담소	인형극과 체험식부스를 활용한 학령 전아동 거리성폭력예방교육
7	일다	<풀뿌리 여성활동가로부터 듣는다> 교육사업
8	제주여성인권연대	소·녀·비·행
9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성교육을 통한 성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10	충북여성민우회	예비 직장인이 바라는 성평등한 일터 문화 확산을 위한 영화 "예비 직장인이 예비 직장인에게"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가해자와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다!"
12	한국여성노동자회	20대의 노동과 삶, 상생의 출구찾기!
13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세계여성행진&강연콘서트 "세상의 반이 걷는다. 빈곤·차별·폭력 없는 세계를 향해!"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 해 온 역사, 함께 나아갈 내일 - 여성인권 한마당

성인지예산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성행동! We Start!

201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소개 2

글: 임원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요즘 나는 초보엄마로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며 아이와 함께 세상 살이에 한창이다. 엄마의 눈으로 세상보기를 하니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중에 새삼 와 닿는 것들이 많다. 첫 번째는 두 달 전 아이와 함께 동네 소아과를 가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외출을 한 경험이다. 평소에 별 불편없이 걷던 길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보니 보도블록도 유난히 울퉁불퉁하고 패인 곳도 너무 많았다. 내심 아이 머리에 충격이 올라 걱정을 하며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경험은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탔던 것인데, 교통의 도시 대전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선 먼 얘기로만 들렸던 경험이다.

제작년에 대전은 버스노선 개편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좌석버스를 일반 시내버스로 혼합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좌석버스는 아이와 함께 타기엔 앞뒤 간격이 비좁고 의자도 높게 있고, 손잡이도 높게 일자로 매달려있다. 그러다보니 버스를 기다릴 때는 그 좌석버스가 먼저 올까 걱정이 앞서고 어쩔 수 없이 그 버스를 타야 할 때는 아이의 불편함, 불안전함 등의 걱정도 하게 된다.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유모차를 끄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시청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

하는 여성, 청소년,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낡은 버스를 교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엄마가 행복한 세상이 아이가 행복한 세상, 남편이 행복한 세상, 가족 모두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세상일 텐데...

오랫동안 겪어온 여성들의 차별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겠지만 특히 공공영역(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일테고, 그 정책을 실제 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 닿게 펼치는 것은 예산이며,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는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고려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짜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 만드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성(性)을 인지(認知)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보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성별분리통계를 만들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한 세상(성주류화시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공공영역에서는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기에 여성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NGO의 입장에서 공공정책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여성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운동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시기이다. 과거에는 여성정책으로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여성행동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6.2지방선거'가 적극적인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적 돌봄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가 후원하는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시작



한국여성재단과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월18일, 한국여성재단 회의실에서 <저소득층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약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보육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명보험협회가 22억원을 지원하여, 4월부터 13개월간 진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 지역에서 3개의 사업파트너를 공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업을 맡아 수행할 파트너단체는 아동, 복지, 의료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솔루션위원회Solu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저소득서비스 욕구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 개별 보육도우미에 대한 수퍼비전도 제공한다.

일하던 여성의 퇴직 이유 1위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때문이라는 사실(보건복지가족부, 2009)은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방임되어 각종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부모(특히)에게 취업과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 참여를 돕고, 저소득층 여성인 가정보육사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창업교육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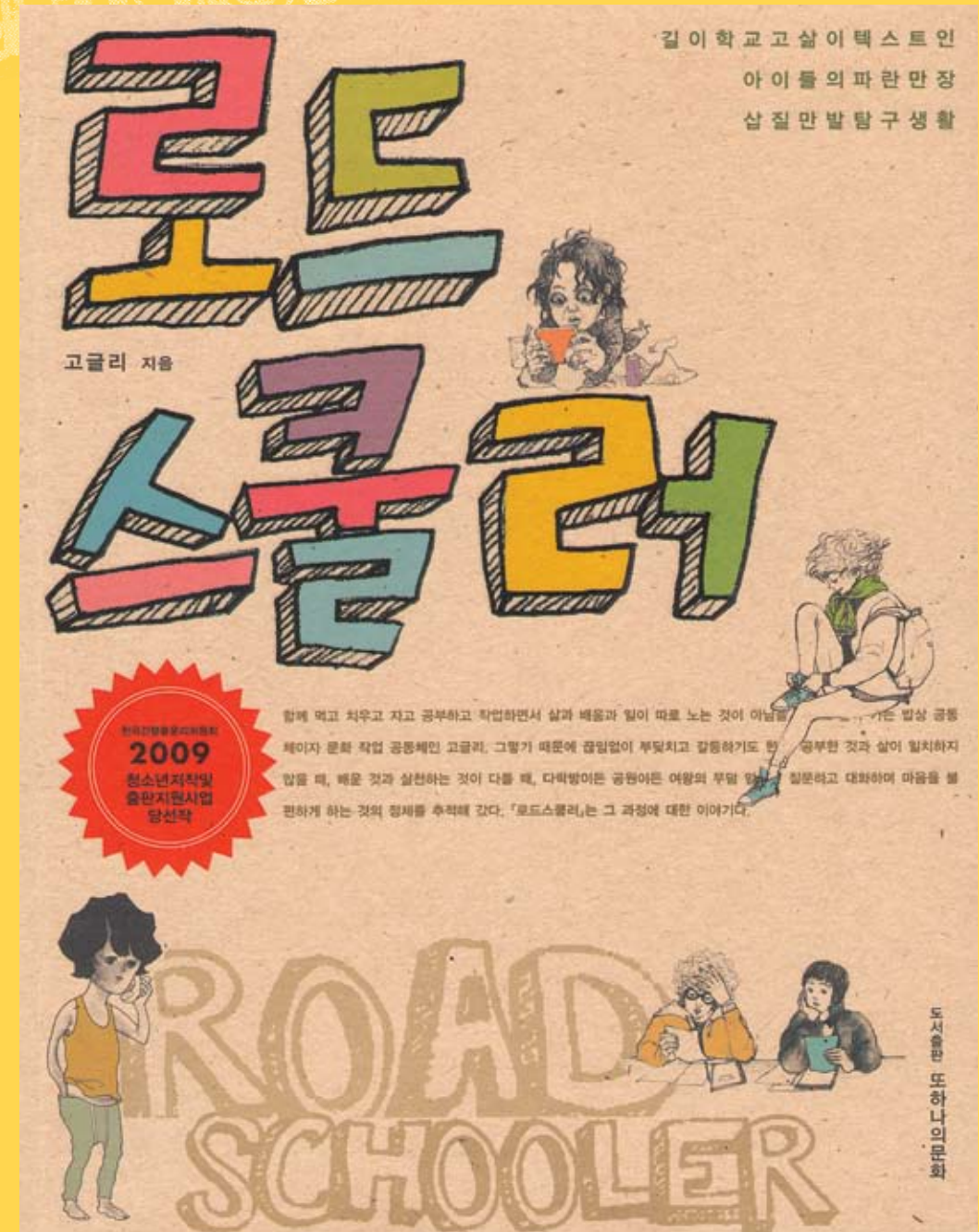
영남에 한국여성재단이 뜨다
2010년 <계명·유한김벌리NPO여성리더십과정> 개설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경기 여성NPO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NPO리더십심화과정>이 지역을 옮겨 영남권 여성활동가와 함께 한다. 2010년부터 NPO여성리더십과정을 이끌어갈 한국여성재단의 새로운 파트너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여성학과가 있는 계명대학으로, 지역 여성활동가 및 리더들을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과정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영남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명·유한김벌리NPO여성리더십과정>에 대한 영남권 지역간담회가 지난 1월27일과 2월10일 대구와 부산지역의 여성리더 및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도 선구적이며 지역 NPO들의 자기정체성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지향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지회 성폭력상담소장도 “리더십, 직업 관리, 하부조직관리, NPO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타 단체와의 갈등이나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대한 요구도 있다”며 프로그램내용에 관한 바람을 말했다.

<계명·유한김벌리NPO여성리더십과정>은 3월24일, 영남권 비영리시민단체 3년 이상 활동가 3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1주간 진행된다.



“**로드스쿨러 공동저자 /금강산**
길을 학교 삼아, 삶을 텍스트 삼아 놓고 배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로드스쿨러로 명명하게 되는 과정! 그 솔직, 발칙, 엉뚱,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네이버 북 리펀드 선정: 책을 읽으신 뒤 반납하시면 책값의 반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낸 책은 전국 의 우리학교 마을도서관 책꽂이를 채웁니다.”